한국여성정책연구원
Korean Women's Development Institute

보도자료

내용문의	박수범 연구위원 ☎ 02-3156-7043
배포담당	황애리 언론담당 ☎ 02-3156-7296
배포일시	2026. 11. 24.(화) 오전
보도시기	배포 즉시

※ 매수 : 총 5쪽

AI 전환 대응, 여성고용 규모와 비중 반영하니 정책 우선순위 차이

한국여성정책연구원, 「AI 기술발전에 따른 여성고용정책 방향」 연구결과 발표

여성고용 규모 기준, 교육·보건 분야 AI 여성고용 취약성 지수 상위권
비중 반영하면 금융 사무직 2위, 상담·접수 사무직 4위로 부각
AI 전환 대응, 여성고용 규모와 비중을 함께 고려한 맞춤형 정책 필요

<연구 소개>

본 연구는 인공지능(AI) 기술의 발전과 확산이 여성고용에 미칠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직업별 AI 노출도와 산업 현장의 도입 수준, 여성고용 규모 및 비중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정책 우선지원 직업군과 지원방안을 제시함.

□ 한국여성정책연구원(원장 김종숙)은 「AI 기술발전에 따른 여성고용정책 방향」(책임 연구자: 박수범 연구위원)의 주요 연구결과를 발표했다.*

○ 이번 연구는 AI 기술이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직업별 업무 특성과 성별 고용 규모와 비중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는 점에 주목했다.

※ AI 노출도(AI Occupational Exposure, AIOE): 직업의 업무수행능력 구조가 AI 기술과 얼마나 관련되어 있는지를 나타내는 지표

※ AI 유효도입률: 산업별 AI 도입률을 직업별 산업분포를 가중해 추정한 직업별 AI 도입 수준

※ AI 도입충격(AIShock): 직업별 AI 노출도와 유효도입률을 결합한 지표

※ AI 여성고용 취약성(AIRisk) 지수: AI 도입충격과 여성고용 규모 또는 비중을 결합해 정책적 우선지원 직업군을 파악하기 위한 지표로, 실제 일자리 감소율이나 실직 확률을 의미하지 않음.

---

* 본 내용의 주요 출처인 연구과제는 아래와 같으며, 2027년 초
박수범 · 이승현 · 권은낭 · 선보영(2026). 「AI 기술발전에 따른 여성고용정책 방향」. 서울: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먼저, 여성고용 규모를 반영한 AI 여성고용 취약성(AIRisk) 지수를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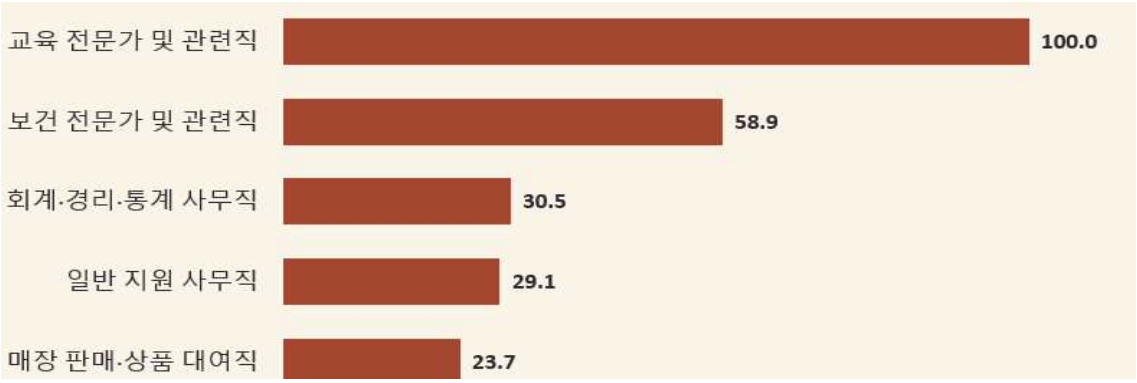
○ 여성고용 취약성이 가장 높은 교육 전문가 및 관련직의 취약성 지수(AIRisk)를 100.0*으로 환산하면, 보건 전문가 및 관련직(58.9), 회계·경리 및 통계 사무직(30.5), 일반 지원 사무직(29.1), 매장 판매 및 상품 대여직(23.7) 순으로 나타났다.

○ 교육 전문가 및 관련직의 여성 취업자는 약 85.8만 명, 보건 전문가 및 관련직은 약 81.6만 명, 회계·경리 및 통계 사무직 약 72.6만 명으로 모두 여성고용 규모가 큰 분야이다.

○ 이는 AI 기술의 영향에 대응하는 여성고용정책을 마련할 때, 해당 직업에 종사하는 여성의 규모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시사한다.

*여성고용 취약성 지수(100점 만점)는 가장 취약성이 높은 직업을 100으로 할 경우 다른 차순위 직업들의 취약성이 100점 대비 몇 점이 되는지를 보여주는 지수임. 즉, 금융사무직 72.5점은 교육전문가 및 관련직(100점) 대비 72.5%의 취약성을 보인다고 해석할 수 있음.

[그림 1] 여성고용 규모 기준 AI 여성고용 취약성(AIRisk) 지수 상위 5개 직업



주: 전체 취업자 기준, 여성 취업자 수로 가중 · 최댓값= 100

※ AIRisk는 정책적 우선순위 지표이며 실제 고용감소 가능성을 의미하지 않음.

□ 한편, 전체 사업체를 대상으로 직업별 여성고용 비중을 반영한 AI 여성고용 취약성(AIRisk) 지수를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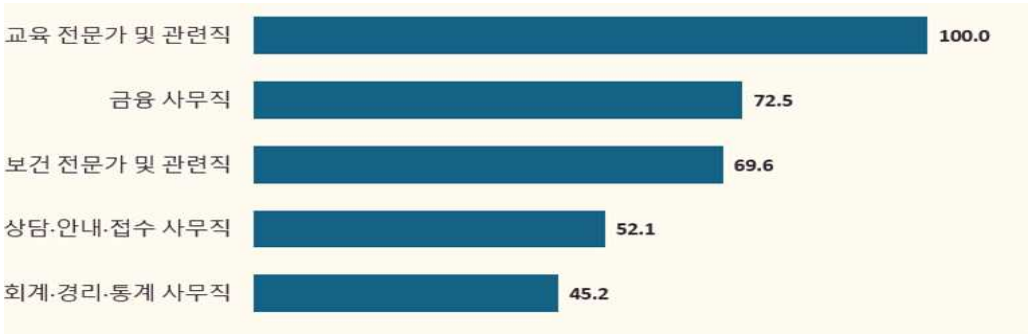
○ 가장 취약성이 높은 교육 전문가 및 관련직을 100.0*으로 환산할 경우, 금융 사무직(72.5), 보건 전문가 및 관련직(69.6), 상담·안내 및 접수 사무직(52.1), 회계·경리 및 통계 사무직(45.2) 순으로 나타났다.

○ 특히 직업 내 여성 비중을 고려할 때 정책적으로 주목해야 할 직업군이 달라지는 것으로 분석됐다. 여성고용 비중은 금융 사무직 54.6%, 상담·안내 및 접수 사무직 77.7%으로 타 직업에 비하여 매우 높다.

○ 이는 AI 기술의 적용 가능성과 산업 현장의 도입 수준이 비슷하더라도, 해당 직업에 여성이 얼마나 집중되어 있는지에 따라 여성고용정책의 우선순위가 달라질 수 있음을 보여준다.

*여성고용 취약성 지수(100점 만점)는 가장 취약성이 높은 직업을 100으로 할 경우 다른 차순위 직업들의 취약성이 100점 대비 몇 점이 되는지를 보여주는 지수임. 즉, 금융사무직 72.5점은 교육전문가 및 관련직(100점) 대비 72.5%의 취약성을 보인다고 해석할 수 있음.

[그림 2] 여성고용 비중 기준 AI 여성고용 취약성(AIRisk) 지수 상위 5개 직업



주: 전체 취업자 기준, 직업 내 여성비중으로 가중· 최댓값= 100

※ AIRisk는 정책적 우선순위 지표이며 실제 고용감소 가능성을 의미하지 않음.

□ 연구진은 여성고용 규모는 정책지원 대상의 크기를 파악하는 데 유리한 반면, 여성고용 비중은 여성이 집중된 직업의 상대적 특성을 파악하는 데 유리하기 때문에, 어느 한 지표만으로 지원대상을 선정하기보다, 두 지표를 상호보완적으로 활용해 정책적 우선순위를 설정할 필요가 있다고 분석했다.

[표] 여성고용 규모·비중 기준 여성 고용 취약 직업군 상위 5개 비교

순위	여성고용 규모 기준	여성고용 비중 기준
1	교육 전문가 및 관련직	교육 전문가 및 관련직
2	보건 전문가 및 관련직	금융 사무직
3	회계·경리 및 통계 사무직	보건 전문가 및 관련직
4	일반 지원 사무직	상담·안내 및 접수 사무직
5	매장 판매 및 상품 대여직	회계·경리 및 통계 사무직

주: 전체 취업자 기준· 직업 내 여성비중으로 가중· 최댓값= 100전체 사업체 기준

※ 서로 다른 기준으로 산출한 상대지수이므로 직업별 점수의 단순 차이를 고용위험의 변화로 해석해서는 안 됨.

□ 박수범 연구위원은 “AI 기술의 영향을 단순한 일자리 대체 가능성만으로 판단하기보다, 여성고용 규모와 비중, 실제 AI 도입에 따른 업무 변화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 라고 강조했다.

○ 연구진은 연구결과를 토대로 ▲ 정책적 우선순위 대상 직업 선별 ▲ 여성고용 모니터링을 현장진단·직업훈련·고용서비스·기업지원으로 연계 ▲ 여성고용 규모와 비중, 실제 AI 도입 및 업무 변화에 따른 지원 대상과 내용 조정 등을 제안했다.

※ 여성집중 직업별 AI 활용에 따른 주요 직무전환 방향 정책(안)

금융·회계·일반 지원 사무직: 반복 입력·정보처리 → 데이터 검증·오류 및 예외상황 처리

상담·영업 관련 직업: 정형 응대 → 복합 민원·고객 지원

□ 김종숙 한국여성정책연구원장은 “AI 기술의 확산이 여성의

고용불안 및 노동시장의 성 불평등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일자리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 라며,

○ “여성AI 교육과 직무전환 기회를 확대하고, 기술 도입의 성과가 고용안정과 일자리 질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 라고 밝혔다.

□ 이번 연구의 주요 분석결과는 11월 24일(화) 개최되는 제147차 KWDI 양성평등정책포럼에서 발표되며, 전체 연구보고서는 2027년 초 발간될 예정이다.